

신난다! 재미난다!

경주에서 1박 2일!!

발길 가는 곳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고도 신라의 향기와 숨결이 가득한 경주 –

신라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흥망성쇠의 수천 년 세월 속에서
때론 빛이 바래고, 때론 원형 그대로 살아남아
우리의 가치를 일깨우는 수많은 문화유적을 통해
더욱 뜻 깊고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국내 유일의 사적형 공원, 경주국립공원 04

경주국립공원 생태체험에 앞서 06

Ⅰ. 신라 이야기 08

신라 탄생의 배경과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고, 박혁거세와 알영부인의 탄생 설화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Ⅱ. 경주 남산에 서다 16

신라시대 세 명의 박씨성 임금의 무덤인 삼릉과 선조들의 과학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포석정을 돌아보고, 남산에 산재해 있는 불상들을 찾아봅니다.



Ⅲ. 신라의 정신과 숨결 28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성덕대왕신종과 불상, 미술품 등을 관람하고, 계림 · 대릉원 · 무열왕릉 등을 찬찬히 둘러보며 신라인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Ⅳ. 토함산에 올랐어라 50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돋보이는 이 유물들을 살펴보면, 유네스코가 왜 이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Ⅴ.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키리라 74

동해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대왕릉과 그것을 바라보는 이견대, 감은사지 등을 둘러보고, 만파식적 이야기도 알아봅니다.

Ⅵ. 남산의 꽃 · 나무 · 동물 이야기 80

숲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와 씨앗의 번식 방법, 이름이 재미있는 나무, 야생 동물의 흔적 찾기, 나비와 나방, 다람쥐와 청설모 구별법 등을 알아봅니다.







국내 유일의 사적형 공원,
경주국립공원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산과 바다 등 전국에 총 20개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바위나 물 같은 자연물, 뛰어난 문화재가 가득한 보물창고입니다. 국립공원은 바로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나 자연·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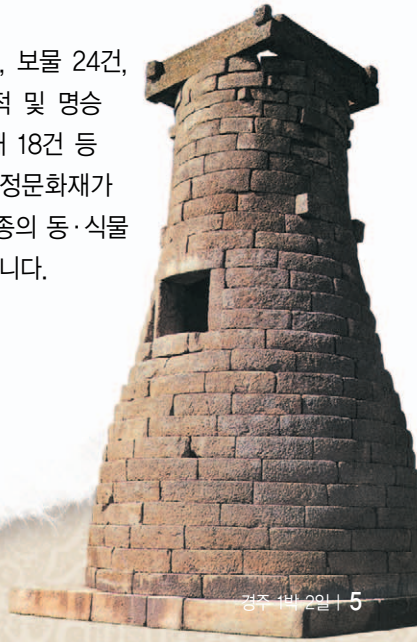

불국사 전경


남산


문무대왕릉

경주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적형 공원으로서, 불교문화의 백미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에 안은 토함산, 야외박물관으로 불리는 남산 등을 비롯한 8개 지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 11건, 보물 24건, 사적 13개소, 사적 및 명승 1개소, 지방문화재 18건 등 모두 67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1,2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 생태체험에 앞서

:: 이 정도는 알고 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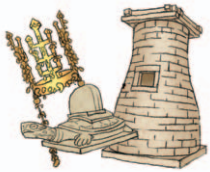
문화재가 뭐예요?

문화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것, 음악, 민속, 습관, 생활양식 등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형 문화재는요?

목조건축, 석조건축,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형태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그 중에서 특히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이 국보와 보물이지요.



무형 문화재는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형태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합니다. 연극에 꼭두각시 놀음과 가면극, 음악에 종묘제례악이나 판소리·가곡·산조, 무용에 진주 검무·처용무·승무, 민속놀이에 강강술래 등이 그것입니다.



공예는 전통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흔히 '인간문화재'라고 부르지요.

기념물과 민속자료도 알고 싶어요

기념물로는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이 포함되고, 민속자료는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에 의식주와 관련된 것, 신앙, 민속지식 등이 있습니다.





얼굴무늬수막새
(人面文圓瓦當)

- 신라 7세기
- 지름 11.5cm, 두께 2cm
- 경주 영묘사터 (慶州 靈廟寺址)



첫번째 이야기



신라이야기

_ 신라 탄생의 배경과 이름의 유래
- 신라(新羅)는 무슨 뜻?
- 경주(慶州)는 무슨 뜻?

_ 신라의 건국 신화❶
- 나정 우물가,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

_ 신라의 건국 신화❷
- 알영 우물가, 계룡이 낳은 알영부인

신라는요...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경주 평야를 무대로 한 6개 촌락에서 비롯되어 약 1,000년 동안 영화를 누린 나라입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합치고, 마침내 통일전쟁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힘을 빌렸던 중국 당나라까지 이 땅에서 몰아냄으로써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신라 탄생의 배경과 이름의 유래

신라(新羅)는 무슨 뜻?

신라는 여섯 부족의 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여 건국한 나라입니다. 신라 이전에는 사로6촌이라는 몇 개의 마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등 힘이 센 집단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들은 농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길러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둘 끌어들였고, 503년인 신라 제22대 지증왕(지증마립간) 4년에 '신라(新羅)'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라는 "덕업일신(德業日新), 사방망라(四方網羅)"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왕께서 하시는 큰일들이 날로 새롭고, 사방으로 고루 미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주(慶州)는 무슨 뜻?

고구려, 백제를 병합하고 그 후 나라를 고려에 넘기기까지 992년 동안, 약 천 년이나 신라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라는 명칭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나라의 국운이 다했음을 알고 고려 왕건에게 신라를 전쟁 없이 고스란히 넘겨주자, 천년 왕국을 얻은 왕건이 아주 '경사스러운 고을'이라는 뜻으로 처음으로 경주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 신라는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2. 그 뜻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3. 고려를 세운 왕건은 '아주 경사스러운 고을'이라는 뜻으로 신라의 수도를 '[redacted]'라고 불렀습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 ❶

나정 우물가, 알에서 나온 박혁거세

옛날 진한 땅에 여섯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들이 모여 임금을 모시고 나라를 세울 의논을 하다가 이야기 끝에 높은 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남쪽 양산 아래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신비스러운 기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니 그곳에는 흰 말 한 마리가 자줏빛의 큰 알 옆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알을 보고 조심스레 깨뜨렸고, 그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남자 아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아이를 동천으로 데리고 가 목욕을 시키자 아이 몸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새와 짐승들은 춤을 추고 땅은 진동했으며, 해와 달은 맑고 밝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나온 알이 박처럼 생겼다 하여 성을 '박'이라 하고,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에서 이름을 '혁거세(赫居世)'라 불렀습니다.

혁거세는 맨 처음 입을 열어 스스로를 '혁거세'라 하였습니다. 이는 귀한 사람, 족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대는 '차차웅', 3대부터 16대까지는 '이사금', 17대부터 21대까지는 '마립간', 22대 지증마립간부터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1.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신라의 시조예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내 이름에는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2. 임금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박혁거세 ▷ _____ ▷ 차차웅 ▷ 이사금 ▷ 마립간 ▷ _____



신라의 건국 신화 ❷

알영 우물가, 계룡이 낳은 알영부인

여섯 마을 사람들이 혁거세의 탄생을 축하하며 "덕이 있는 배필을 정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렵 사량리의 알영 우물가에 계룡 한 마리가 나타나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무척 아름다웠는데, 입술만은 닭의 부리처럼 생겨 보기가 흉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월성 북쪽 시냇가로 데리고 가 목욕을 시키니 부리는 떨어지고 앵두 같은 입술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자아이가 나온 우물 이름을 따서 '알영'이라 하였으며, 남산 서쪽 기슭에 궁궐을 짓고 하늘이 내려준 두 아이를 모셔다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둘은 자라 열세 살이 되던 해에 혼인하여 왕과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 또는 서벌, 사라, 사로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만에 왕이 죽었고, 7일 후에 그 시신이 땅에 흩어졌으며, 이때 왕후도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왕과 왕후의 시신을 합해서 장사 지내려 하니, 큰 뱀이 나타나 방해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시신이 흩어진 대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오릉입니다. 뱀이 나타났다 하여 '사릉(蛇陵)'이라고도 합니다.



1. 박혁거세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2. 박혁거세와 알영부인의 무덤은 어디인가요?



도깨비무늬기와
(鬼面瓦)

- 통일신라
- 높이 33.7cm, 너비 28.5cm
- 경주 황룡사지 출토



두번째 이야기



경주 남산에 서다

_ 부처님의 나라, 남산
_ 신라 박씨 세 왕의 능이 있는 '삼릉'
_ 포석정은 무엇을 하던 곳?
_ 삼릉계곡마애석가여래좌상
_ 삼릉계곡 목 없는 석불좌상
_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



부처님의 나라, 남산

남산이란 이름은 신라의 왕궁인 반월성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금오산으로 쇠 금(金), 자라 오(鰲)를 씁니다. 즉, '황금자라 산' 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주 기행에서 남산을 빼놓지 말 것을 권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남산이 신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함께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쪽의 나정은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탄생 신화가 전해지는 곳이요, 근처 양산재는 신라 건국 이전 서라벌에 있었던 6촌의 시조를 모신 사당이며, 남산의 포석정은 신라 말기 경애왕이 후백제의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신라인들에게 남산은 숭배의 대상이었고 지금까지도 토속신앙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신라인들은 산의 곳곳에 석탑을 새기고 석불과 절을 만들어 '부처님의 나라' 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산 속의 야외 박물관, 남산

경주 남산은 최고봉인 고위봉(494m)과 금오봉(468m) 두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개의 골짜기와 180여 개의 봉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엔 고분 37개소, 왕릉 13개소, 사지 150여 개소, 불상 129체, 탑 100여 기 등 690여 점의 유적이 널려 있으며,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여 경주 남산을 일컬어 '산속의 야외 박물관' 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산은 크게 동남산과 서남산으로 나뉩니다. 동남산은 완만한 편이고, 서남산은 골이 깊고 가파릅니다. 골골마다 산재해 있는 탑과 불상을 찾아보세요.



신라 박씨 세 왕의 능이 있는 '삼릉'

"남산을 모르고서 경주를 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삼릉곡을 모르고 남산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릉곡은 사시사철 시원한 계곡물이 끊이지 않아 '냉곡'이라고도 불리며 남산에서 비교적 긴 골짜기로 꼽힙니다. 신라 박씨 세 왕의 능이 있다 하여 '삼릉곡'인 이곳은 솔숲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답니다.

여기 세 개의 무덤의 주인은 각각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입니다. 그러나 시기 차이가 너무 커 신빙성은 없답니다.

가운데 있는 53대 신덕왕릉은 1953년과 1963년 두 차례에 걸쳐 도굴되었습니다. 석실분으로서 신라 통일 전후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유물은 이미 도굴되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삼릉의 남쪽 100여 미터 아래에는 포석정에서 비운에 돌아가신 55대 경애왕릉이 있습니다.





불상 이름, 어떻게 외울까?

불상은 부처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세의 부처, 내세의 부처 등등 그 모습도 여러 가지고,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짓는 공식이 있어요.

ex) 봉화 북지리마애여래좌상

출토지&소재지	재료 및 방식	주인공	자세
봉화 북지리	마애	여래	좌상

Q.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으로 아래를 채워보세요.

1. 어디에서 나왔나?
   (　　계곡)
2.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나?
   (　　)
3. 누구를 조각한 것인가?
   (　　)



포석정은 무엇을 하던 곳?

사적 제1호



'삼국유사'에는 "헌강왕 때 평화롭고 살기 좋던 때에는 왕이 이 곳에 들러 술잔을 돌리며 잔치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굽은 도랑이라는 뜻으로 '곡수거(曲水渠)라고 하는데, 이 홈에 물이 흐르도록 한 다음 그 위에 술잔을 띄우고, 잔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 시를 읊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기울기를 철저히 계산하여 계곡에서 끌어들인 물이 한 바퀴를 휘감아 돌고 밖으로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1개의 돌이 아니라 60여 개의 조립한 돌로 만든 물길인데도 물이 새지 않는다니 놀랍지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 무너지고 다시 만들면서 원래의 구조가 많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석정을 두고 새로운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왕과 귀족들이 흥청망청 놀았던 곳이 아니라 당시 나라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역사 속에 묻혀 버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없습니다만, 과연 포석정은 어떤 일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마음껏 상상해서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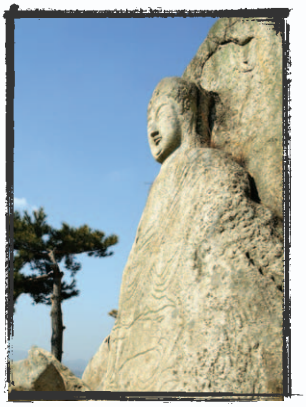




삼릉계곡마애석가여래좌상

경북 유형문화재 제158호

높이 7m, 너비 5m 되는 거대한 자연 암벽에 6m 높이로 새긴 이 불상은 앉은 모습의 석가여래상입니다. 남산의 좌불 중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불상은 너비 4.2m 되는 큰 연꽃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설법인을 표시하고 먼 하늘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대좌의 연꽃은 2겹으로 피었는데, 꽃잎마다 보상화가 장식되어 있어요. 옷에는 주름이 가늘게 선으로 조각되어 있고, 몸체 뒤에는 머리 부분과 몸에 빛이 나는 듯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조각하고, 몸 전체는 천연의 바위를 그대로 이용하여 손발을 표현함으로써 주위의 바위산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머리 부분과 몸 부분의 수법이 다른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8세기 이전에 조각된 것으로, 몸 부분은 9세기에 조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애불이란?

암벽이나 구릉에 새긴 불상, 또는 동굴을 뚫고 그 안에 조각한 불상을 말합니다. 서아시아, 이란 고원 등의 부조 석조 유물의 영향을 받아 BC 3~2세기 무렵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애불로는 경주의 석굴암과 탑골마애조상군, 경주시 건천읍의 단석산 신선사마애불상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삼릉계곡 목 없는 석불좌상

1964년 계곡에 묻혀 있던 것을 등산객이 발견하여 지금의 장소로 옮겼으며 불두는 유실되어 몸체만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수인법으로 미루어 석가여래로 생각되며 조각기법을 보면 신라 전성기인 8세기 불상으로 보입니다.





목 없는 불상, 코 없는 불상

목 없는 불상은 조선시대 억불 숭유 정책때, 불상들의 머리를 잘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없는 불상이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부위가 목이므로 훼손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코 없는 불상은 "불상의 코를 갈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약방에서 불상의 코를 갈아 "고비산" 이라고 팔았다는 이야기도…….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

경북 유형문화재 제19호

목 없는 불상 왼쪽 산등성이에 길쭉한 바위를 깎아 1.5m가량의 보살을 새겨놓았는데 머리의 화불, 왼손에 든 정병을 보아 관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불상을 새긴 장인이 바위의 붉은 부분을 부처님의 입술부분에 오도록 조각하여 아직도 입술 부분이 불그스레하여 불상의 미소가 돋보인답니다.







백률사 금동약사불입상
(栢栗寺金銅藥師如來立像)

- 국보 제28호
- 높이 177㎝ 등신대(等身大)
- 통일신라시대 최대의 채색 금동불상

세번째 이야기



신라의 정신과 숨결

_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물을 찾아라!!
_ 성덕대왕신종
_ 신라 왕들의 외교 사신 접견장, 안압지
_ 신라 왕이 고이 잠든 곳, 대릉원
_ 신라 무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_ 오늘날의 천문대, 첨성대
_ 지혜로운 선덕여왕 이야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보물을 찾아라!!

국립경주박물관은 1910년 경주 시민들이 모여 만든 경주신라회에서 출발, 1913년 경주 고적보전회로 이름을 바꾸고 신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시대 객사 건물에 전시관을 열면서 박물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경주고적보전회는 국립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바뀌었는데 이후 많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제대로 된 박물관이 필요하여 1975년 지금의 자리에 전시관을 지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고관, 안압지관, 미술관, 특별전시관, 어린이박물관 등 총 5개의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야외 전시실에도 다양한 전시물이 가득합니다. 조상들의 얼이 담긴 문화재, 그 숨결을 느끼러 떠나볼까요?



다음의 유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찾았으면 O표 하세요.

1. 한자의 출(出)자 모양의 장식을 한 금관 ( )
2. 여러 가지를 매단 금허리띠 ( )
3. 사람 모양 토우 ( )
4. 토우 항아리 / 뼈항아리 ( )
5. 귀족들이 뱃놀이때 탔던 것으로 보이는 배 ( )
6. 안압지에서 귀족들이 연회 시에 벌칙을 주기 위해 만든 14면 주사위 ( )
7. 불교가 국교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순교한 이차돈순교비 ( )
8. 신라인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 ( )
9. 치미(건물 지붕의 용마루 끝을 장식하는 기와) ( )

힌트 1, 2번 : 신라실 I
3, 4번 : 신라실 II
5, 6번 : 안압지관
7, 8, 9번 : 미술관





성덕대왕신종(봉덕사종, 에밀레종)

국보 제29호

박물관 입구 오른쪽에 걸려 있는 이 종은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종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인 혜공왕 때에 완성하였습니다.

이 종은 처음에 봉덕사에 달았다고 해서 봉덕사종이라고도 하며,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본따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지만, 현재 과학적인 성분 분석 결과 실제로 아기를 넣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성덕대왕신종의 비밀

✲음관(음통)이 있어요 : 종의 맨 위에 있는 장치로서, 종 안의 소리를 밖으로 빼냄으로써 종소리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동종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해요.

✲종의 두께가 달라요 : 위치에 따라 서로 두께가 다름으로써, 서로 다른 음파를 만들고, 이 음들이 합쳐져서 종소리가 더 길고 오래 머물도록 합니다. (맥놀이현상)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용뉴 부분이 용머리 모양이에요.

✲종의 중간에 조각된 비천상과 연꽃 문양이 아주 아름다워요.

✲몸통에 남아 있는 1,000여 자의 명문은 문장 및 새긴 수법*도 뛰어납니다.

*명문은 주조(양각으로 주조함)



신라 왕들의 외교 사신 접견장, 안압지

안압지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새로 만든 동궁(태자가 거처하던 곳)의 연못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궁 안에 연못을 파고 그 안에 세 개의 산을 만들어 꽃과 나무를 심고 갖가지 새와 짐승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중심 건물은 '바다를 바라보는 궁전'이라는 뜻의 임해전이며, 그 앞의 못이 안압지입니다. 가장자리에 굴곡이 많아 어느 곳에서 보아도 연못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좁은 연못을 바다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1980년대 발굴된 토기 파편으로 보아 원래 이름은 '월지'였는데, 신라 멸망 이후 본래의 모습을 잃고 늪지가 된 이곳에서 노는 오리와 기러기를 보고 시인 묵객들이 '안압지'라고 이름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리와 기러기의 노는 모습을 보고 시인 묵객들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왕들의 접견장이었던 이곳은 어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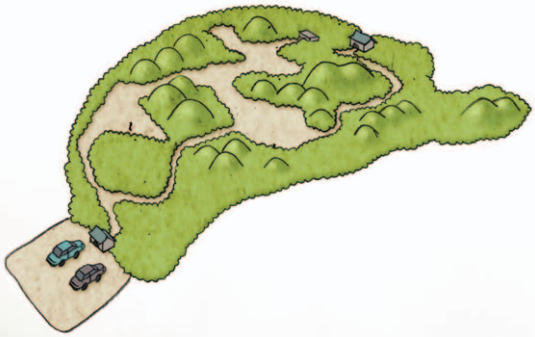
✲안압지는 어느 한 곳에서 보아도 연못 전체를 볼 수 없을 만큼 넓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라 왕이 고이 잠든 곳, 대릉원

경주 시내 곳곳에는 작은 언덕 크기만큼이나 되는 큰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대릉원은 신라시대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 23개가 모여 있는 곳으로 경주에서 능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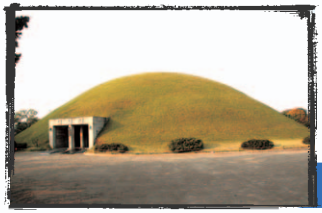
대릉원 무덤 중에서 천마총, 황남대총을 발굴했으며, 출토된 유물은 모두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추왕릉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후손 중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른 미추왕의 무덤



천마총

말을 탈 때 진흙이 말을 탄 사람에게 튀지 않게 막아주는 말다래에 그려진 천마상을 본따 붙인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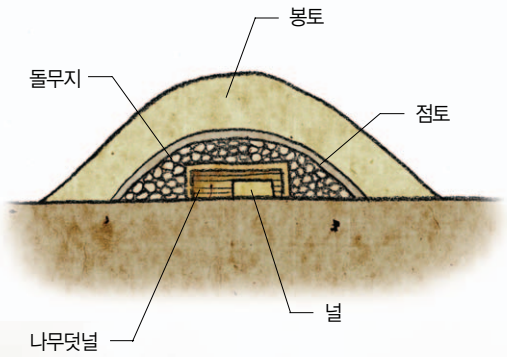
황남대총

경주에 있는 무덤 중 가장 큰 무덤. 남쪽 것은 왕, 북쪽 것은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



신라 무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라사람들이 쓴 독특한 무덤이 바로 돌무지 덧널무덤입니다. 나무로 된 방안에 시신과 부장품을 넣고, 나무널 주위에 돌을 쌓은 다음, 그 위에 점토를 바르고 흙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무덤은 크기도 크고, 도굴하기도 매우 어려웠으며, 그런 이유로 지금의 우리가 신라의 많은 유물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돌무지 덧널무덤



무덤 가운데 '총'과 '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직접 써 보세요.

- 태종무열왕____
- 문무왕____
- 천마 그림이 나온 ____ ____ 총
- 황남동에 있는 ____ ____ 대총

릉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왕과 왕비의 무덤

총 왕족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인의 이름을 몰라서 발굴한 유물 중 특징적인 것으로 이름을 지은 무덤

고분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무덤



오늘날의 천문대, 첨성대

신라 선덕여왕 때에 쌓은 첨성대는 별을 보는 곳입니다. 최초로 여왕이 된 선덕여왕은 천문관측을 통해 왕의 권위를 높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첨성대는 동양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화도의 참성단과 같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문기상 관측소는 따로 있었고 그 마당에 세운 기념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첨성대의 구조와 상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충분히 천문 관측대로서 역할을 했을 가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첨성대에서 어떻게 별을 관측했을까요?

사다리를 타고 창문까지 오른 다음, 안쪽에 다시 사다리를 놓고 정자석이 있는 첨성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창문 높이까지 첨성대 내부에는 흙과 자갈로 채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꼭대기에 올라 나무판을 깔고 별을 관측하였습니다.

별을 관측하던 기구는 대나무로 만든 망통이었습니다. 망통은 흩어지는 시야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기에 매우 적합하였으며 별을 관측하던 사람을 '일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선덕여왕 이야기

향기 없는 꽃, 모란

어느 날,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모란 세 송이를 그린 그림과 씨앗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그 그림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씨를 심어 나중에 꽃이 피었는데, 과연 여왕이 얘기한 것 같이 향기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며 묻자 여왕은,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어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백제 군사를 잡아라!!

어느 겨울, 영묘사 옥문지 근처에서 개구리들이 며칠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고 선덕여왕에게 알렸습니다. 여왕은 잠시 생각더니, 여근곡으로 급히 군사를 보냈습니다. 계곡에 숨어 있던 백제 군사들은 신라 군사들에게 모두 잡혔습니다. 신하들은 그곳에 백제 군사가 숨어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여왕은 "개구리가 우는 모습이 성난 군사들의 모습과 같고, 옥문은 여자를 상징한다. 빛깔로는 흰빛이요, 흰색은 곧 서쪽을 가리키니 그곳에 적들이 있음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도리천에 묻힌 선덕여왕

어느 날, 선덕여왕이 신하들을 불러 놓고 모월 모일 자신이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병도 없던 여왕이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하니까 어리둥절했고 또, 도리천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신하들이 묻자, 여왕은 낭산 남쪽이라고만 일러 주었습니다.

얘기한 날에 이르러 여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하들은 여왕이 일러 준 낭산 남쪽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문무왕 때 사람들이 낭산 아래쪽에 사천왕사를 지었습니다. 그때서야 신하들은 여왕의 말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천왕이 머무는 사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합니다.



반월성 사적 제16호

반월성은 원래 반달 모양으로 생긴 땅에 쌓은 성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흙과 돌을 섞어 쌓았고 역대 신라 왕들이 살던 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화에 따르면 처음에는 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석탈해가 꾀를 내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석탈해가 신라 4대왕으로 즉위한 후 왕궁이 들어섰습니다. 가까이에 안압지가 있고 첨성대도 있어 이 부근이 신라 도읍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빙고 보물 제66호

이 석빙고는 조선 시대 영조 때에 경주로 부임해 온 부윤 조명겸이 쌓은 것입니다. 해마다 빙고를 지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화강암으로 만들어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석빙고 가운데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석빙고는 겨울에 강물이 얼면 얼음을 잘라다 넣어두고 잘 보관하여 그 이듬해 여름에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용도는 여름철에 열병이 돌아 몸이 불덩이 같이 열이 날 때 그 열을 식히기 위한 얼음 찜질용으로서, 그리고 여름에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의 부패를 최소화하는 물품으로 얼음을 썼는데 집안 지체의 높낮이에 따라 계급의 고하에 따라 분배량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계림

서라벌에는 하늘에 제사를 모시는 신성한 숲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런 숲들 중에 재성(임금이 기거하는 성)인 월성 북쪽에 시림이라는 숲이 있었습니다. 시림은 여러 숲 중에서도 처음 시작된 숲, 또는 근본이 되는 숲이라는 뜻이 됩니다.



시림은 계림이라고도 하는데 계림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곳에는 조선 순조 3년에 세운 김알지 탄생에 대한 비가 남아 있고 내물왕의 능으로 전해지는 무덤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묘 사적 제21호

신라의 위대한 장군. 김유신 장군은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후손입니다. 신라의 귀족이긴 했지만 차별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김춘추와 여동생을 결혼시켜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열심히 싸워 나라에 큰 공을 많이 세워 신라 최고의 벼슬인 각간과 대각간, 문무왕때는 태대각간까지 오르게 됩니다.



태종무열왕과 함께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문무왕을 모시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 후에 신라를 정복하려는 당나라를 물리침으로써 삼국통일 최고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태종무열왕릉 사적 제20호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은 김유신 장군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름은 김춘추입니다.

잘생긴 외모와 말솜씨가 좋고, 뛰어난 외교력으로 당나라와의 연합을 성사시켜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태종무열왕릉 귀부와 이수

국보 제25호



조각 기술이 뛰어나고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전액의 글씨는 무열왕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비석의 몸체는 없어지고 비석받침돌(귀부)과 장식돌(이수)만 남아 있는데 머리장식 가운데 부분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 무열왕의 무덤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거북의 모습은 살아 있는 것처럼 목을 높이 쳐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발 모습 또한 앞으로 나아갈 때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 비석의 조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권 최대의 걸작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토우 달린 목긴 항아리
(土偶裝飾附長頸壺)

- 국보 제195호
- 높이 34cm



네번째 이야기



토함산에 올랐어라

_ 불국사와 석굴암, 왜 토함산에 지었을까?
_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
_ 돌로 만든 신비로운 절, 석굴암

'안개와 구름을 삼키고 토한다' 는 토함산

경주 남쪽에 있는 이 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큼 자랑스런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들 건축물의 어떤 부분이 오늘의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하고 마음 설레게 만드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어했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떠나 봅시다.



불국사와 석굴암, 왜 토함산에 지었을까?

토함산은 신라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한 산입니다. 그들은 토함산, 선도산, 남산, 금강산, 낭산을 동서남북과 중앙을 대표하는 오악으로 삼아, 봄 · 가을로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비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토함산은 동해에서 서라벌에 이르는 최단 통로로 신라의 국토를 지키는 제1의 관문입니다. 제4대 왕인 석탈해는 토함산의 산신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이 되었다고 하며, 죽어서도 호국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염원한 문무대왕릉도 토함산 아래 동해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국의 의미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토함산에 지은 것이지요.



불국사와 석굴암은 어머니를 위한 절?

'삼국유사' 에는 김대성이라는 인물이 현생의 어머니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 석불사(석굴암)을 세웠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전에 지었고, 여러 가지 책에서 말하는 기록이 서로 달라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언제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대성이라는 실존 인물이 건축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

불국사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나라' 입니다. 부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세계를 이상적인 부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경의 교리대로 설계하고 뛰어난 건축과 조각 실력으로 불국사를 완성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진리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으며, 깨닫기만 하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시는 부처님도 현생의 부처인 석가모니불, 과거의 부처인 다보여래, 내세의 부처인 아미타불,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불 등등 여러 분이 되는 것입니다.

불국사는 모시는 부처님에 따라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불국사를 돌아보며 모시는 부처님에 알맞은 전각 이름을 찾아 보세요.





석가탑 : 안정감과 균형감이 탁월한 3층 석탑
다보탑 : 오밀조밀 화려한 조각이 되어 있는 탑
극락전 : 중생들이 걱정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안양국, 또는 안락국이라고 한다.
무설전 : 스님들이 공부하고 설법하는 곳. 無說殿이란 말이 없는 곳, 세상의 진리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뜻. 즉, 진리를 말로 표현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뜻.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세세한 상징들로 가득한 불국사

비로자나부처님의 연화장 세계

비로자나부처님은 큰 덕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연화장 세계는 장엄하고 진리의 빛이 가득하며, 이 세계는 연꽃으로 되어 있어 연화장이라 부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바 세계

석가모니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려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바 세계는 곧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계를 말합니다. 신라 사람들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세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다른 부처의 세계보다 크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품고 오랫동안 수행한 결과 그 뜻을 이루어 지금부터 10겁 전에 부처가 되어 현재 극락에 머물고 있다 합니다.



특명, 불국사에서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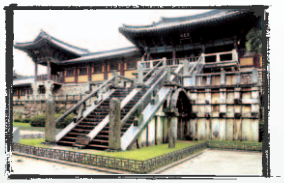
연화교 · 칠보교 (국보 제22호)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문, 즉 안양문 아래의 다리입니다. 아래의 연화교는 10단, 위의 칠보교는 7단으로 돌계단마다 연꽃잎이 새겨져 있습니다. 절에 연꽃이 많은 것은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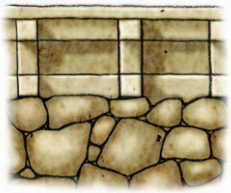
청운교 · 백운교 (국보 제23호)

불국사 정면 자하(붉은 안개)문으로 올라가는 다리. 자하는 석가모니를 둘러싼 빛을 뜻합니다. 이 다리를 올라가면 석가모니불이 있는 대웅전으로 이어집니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석가여래불을 가장 중요하게 모셨습니다.



자하문 쪽 석축과 청운교 옆 '동틀돌'

자하문쪽 석축은 각양각색 돌을 제멋대로 쌓은 것 같지만 돌의 결을 따라 서로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무리도 아래쪽 쌓은 돌에 꼭 맞게 깎고 다듬었습니다. 천년 세월이 지나도 끄떡없는, 과학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건축 기법을 '그렝이질, 그렝이 기법' 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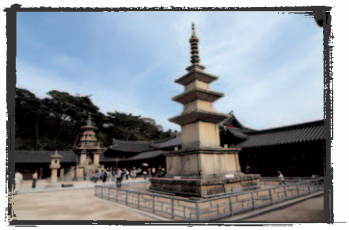
절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 이유

물고기가 밤에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정진하는 수행자들도 항상 눈을 뜨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쓰라는 부처님 말씀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다보탑과 석가탑 (국보 제20호와 21호)

대웅전 마당에 나란히 서 있어요. 석가탑은 석가모니, 다보탑은 다보여래를 뜻하는데 이들을 나란히 세워 둠으로써 "진리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과거와 현재는 따로 된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석가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습니다.



대웅전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

다보탑 | 많은 보석을 걸친 부처, 다보여래를 상징하므로 화려해요.



탑의 기초 부분을 나타내는 기단에 동서남북으로 10개씩의 계단을 설치했으며, 이 10개의 계단은 인간이 근본적인 도리를 실천할 때 나타나는 덕을 상징합니다.

석가탑 | 탑이 곧 석가모니불을 상징하므로, 아무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불국사 퀴즈! 퀴즈!

1. 어느 절에나 불탑이 있습니다. 왜 탑을 세울까요?

2. 그림자를 비추지 않는 탑, 무영탑의 슬픈 전설을 간직한 탑은?

3. 돌로 만든 등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4. 다음은 절에서 만나는 사물이에요. 예불을 올릴 때 필요한 네 가지 도구를 말하지요. 악기와 같이 두드려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 소리의 울림을 통해 생명이 있는 것들을 깨우고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사물의 이름을 써보세요.



이 세상 모든 생명을 극락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절이라도 다 있어요.



나무로 만든 물고기.
물 속 생명인 물고기를 구제합니다.



네 발 달린 동물이 이 소리를 듣고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구름 모양으로 된 작은 청동판.
하늘을 나는 날짐승을 위한 것입니다.



절에 가면 꼭 눈여겨 보세요

부처님 나라의 대문, 일주문

어느 절이나 맨 처음 입구에는 일주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여기서부터 신성한 부처님 나라니까 보다 정갈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오세요'라고 말해주는 문이에요.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어서 일주문(一柱門)이라고 하는데, 절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 보세요. 현판의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부처님 나라 입구의 문은 몇 개?

절에서 주요 건물인 대웅전 앞마당까지 가는 데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 불이·해탈문 등 여러 개의 문을 지납니다. 불국사에서는 일주문과 천왕문, 자하문을 지나면 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절 마당으로 들어가는 큰문, 수행하는 예배원으로 들어가는 중문이 있어요.

문지기 사천왕이 있는 문, 천왕문

부처님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상상 속의 산이 수미산입니다. 그리고 그 수미산을 동서남북 네 곳에서 지키고 있는 문지기 아저씨가 사천왕이에요.





동쪽 문지기, 지국천왕

칼을 잡고 있어요. 착한 이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에게 벌을 줘요.



서쪽 문지기, 광목천왕

칼을 들고 있거나 탑을 들고 있어요. 나쁜 사람에게 벌을 줘요.



남쪽 문지기, 증장천왕

용과 여의주를 잡고 있어요. 가을의 신으로 만물이 소생하게 해요.



북쪽 문지기, 다문천왕

탑이나 비파를 들고 있어요. 겨울의 신으로 즐거움을 관리해요.



돌로 만든 신비로운 절, 석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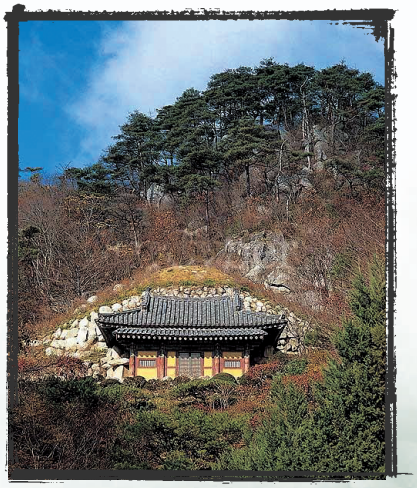
석굴암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돌로 만든 절입니다. 신라 왕실의 번영과 왜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든 절로서 옛날에는 석불사라 불렀습니다.



석굴사원은 원래 뜨거운 열기와 비, 독충 따위를 피해 법회를 진행하기 위해 인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동굴을 이용하다 시간이 흐르고 규모가 커지면서 암석을 파서 석굴사원을 만들게 되었고, 불교의 전파 경로에 따라 중국과 우리 나라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인도나 중국의 돌들과 달리 뚫기가 아주 어려운 화강암 같은 돌이 대부분이므로 석굴사원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석굴암은 전체적인 설계와 공간 배치뿐 아니라 자연 통풍, 온도 및 습기 조절, 조각 자체의 완성미 등에서 전세계인이 깜짝 놀랄 만큼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안목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보수 공사를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석굴암의 신비를 알아내려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풀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배치도

전체 38구의 조각상이 있어요.





주실

둥근 모양의 이곳은 부처님이 계시는 하늘을 상징해요. 부처님을 중심으로, 십일면 관음보살상과 십대제자상, 보살상이 새겨져 있어요.

연결 통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나라를 지키는 금강역사상,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어요.

전실

네모난 형태의 이곳은 우리가 사는 땅을 상징해요. 인도의 재래신으로서 부처님에게 귀의하여 불법을 지키는 여덟 신, 팔부신장이 새겨져 있어요.



Wow, 놀라워요. 석굴암!!

1. 화강암으로 아름다운 석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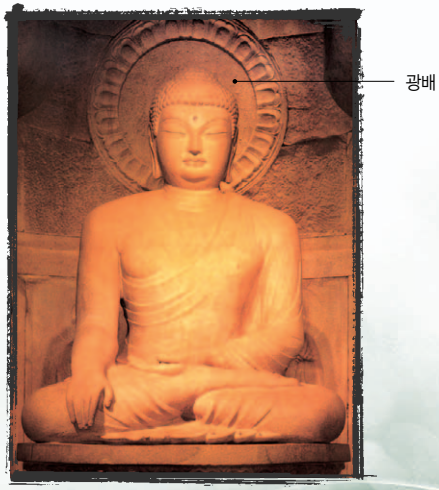
화강암은 매우 단단해서 섬세한 조각을 하기가 까다로운데 신라의 석공들은 이 돌로 아름다운 조각상과 석실을 만들었어요. 석굴암에는 본존불을 포함하여 팔부신장, 금강역사, 4천왕, 2대 천신, 10대 제자, 11면 관음보살, 8명의 보살 등 총 38구의 조각상을 교묘하고 조화롭게 배치하여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2. 완벽한 모습의 본존불

둥근 원형 대좌 위에 앉은 모습이 너무도 당당하고 기품 있어 보여요. 위엄과 자비를 갖춘 모습이 마치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본존불과 대좌의 높이 비율을 2:1로 맞추어 존엄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어요.

3. 구석구석 과학이 숨어 있어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라 본존불 뒤의 광배가 달라 보여요. 머리와 광배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보면 길쭉한 광배가 둥글게 보인답니다. 또, 석굴암의 구조는 8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어요. 8의 배수를 이용하여 모든 공간의 지름을 재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던지 일반 다른 절과 달리 본존불을 먼저 놓고 그 본존불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덮개를 덮었다고 합니다.





4. 비녀 모양 돌못으로 돔을 튼튼하게!!

석굴암 주실의 천장은 돔처럼 되어 있어요. 신라인들은 비녀처럼 생긴 돌을 판판한 네모 모양 돌 사이에 끼워 넣었는데 이것이 돌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면서 아주 튼튼한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5. 천연의 습기 제거제, 석굴암 바닥!!

신라 사람들은 물이 솟아오르는 샘 위에 석굴을 만들었어요. 습기가 차면 이끼가 생기는 등 조각상에 좋지 않으므로, 습기 많은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바닥으로 가라앉도록 일부러 바닥을 차갑게 한 것이랍니다. 신라인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요?



원래 석굴암 외벽으로는 돌덩이가 가득한 흙을 덮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해체 보수공사를 한 후 지금은 석굴암 내부에 인공적인 기계(히터)를 돌려서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부에 물이 맺힌다고 해요.



일제 강점기 때의 석굴암



복원공사를 위해 해체시켜 놓은 석굴암



최근의 석굴암



금제 굵은고리 귀걸이
(太環耳飾)

- 보물 제455호
- 6세기
- 길이 8.8cm



다섯번째 이야기



죽어서도 이 나라를 지키리라

_ 동해바다를 지키려는 문무대왕릉
_ 아버지의 뜻을 이은 감은사
_ 불행을 무찌르는 피리, 만파식적
_ 문무대왕릉을 바라보는 이견대

경주는 시내뿐만 아니라 바다쪽으로도 수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감포 쪽으로 가다 보면 수려한 산세와 계곡을 배경으로 한 함월산 기슭에 천년 고찰 기림사와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석굴사원으로서 선무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골굴사가 있습니다. 또한 감은사지, 이견대, 문무대왕릉 등 신라인의 호국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유적들과 시원한 해수욕장이 펼쳐집니다.



동해바다를 지키려는 문무대왕릉

삼국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은 "죽은 뒤에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의 평화를 지킬 것 '이라며 자신의 유해를 동해에 장사 지내줄 것을 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에 문무왕의 유골을 안장하였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문무대왕릉, 일명 대왕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골을 안장한 것이 아니라 화장한 뼈가루를 뿌린 곳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은 감은사

신라를 통일한 문무왕은 동해에 출몰하는 왜구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힘으로 왜구를 막기 위해 대왕암이 보이는 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인 신문왕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절을 완공하고 '부왕의 큰 은혜에 감사한다' 는 뜻으로 이름을 감은사라고 지었습니다.

감은사 터를 보면 금당 마루 바닥 밑에 공간이 있는데, 이는 금당 밑에 구멍을 내어 용이 들어와 서리게 했다는 '삼국유사' 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행을 무찌르는 피리, 만파식적

불행을 무찌르는 피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신라 제31대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에 감은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마음을 모아 용을 시켜 동해의 어느 산에 대나무를 내려 보냈어요. 이 대나무는 낮이면 갈라져 둘이 되고, 밤이면 합하여 하나가 되는지라 왕은 이 기이한 소식을 듣고 그 산으로 갔답니다.

이 때 용 한 마리가 왕 앞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대나무가 합쳐졌을 때,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평화로워 질 것입니다."라고 예언하고 사라졌습니다. 왕이 용의 말대로 대나무를 베어서 피리를 만들어 부니, 나라의 모든 걱정 · 근심이 해결되었다 해요. 이 설화에는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 흩어져 있던 백제와 고구려 유민의 민심을 통합해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호국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을 바라보는 이견대

신문왕이 봉길리 앞바다에 있는 부왕인 문무왕의 해중능묘를 바라보고 절을 하기 위해 지었다는 곳이라고 전해 내려와요.

1970년에 그 건물터를 발견하여 새로 누각을 짓고 이견대라는 현판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신문왕이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을 보았다고 전하는 곳으로, 만파식적의 설화와도 관련이 깊은 유적입니다.







"도란도란 소곤소곤,
자연이 말을 거네!"

수천 년 세월,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간 이 땅에는 계절을 잊지 않고 찾아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리며 연년세세 이어온 꽃과 나무들이 있고, 그와 벗하며 살아온 동물들이 있습니다. 도란도란 소곤소곤, 알콩달콩 하하호호, 숲 속의 생물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숲에 오면 왜 기분이 좋아 질까요?

Q. 숲에 오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A.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의(phyton)' + '죽이다(cide)' 의 합성어로, 식물이 다른 식물보다 잘 자라기 위해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을 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질은 스트레스 해소 및 살균작용 등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요.

피톤치드가 궁금해!!

- 건강한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는 넓은 잎보다 바늘잎 나무에서 더 많이 나와요.
- 계절 중에는 봄과 여름, 하루 중에는 오전 10~12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삼림욕을 할 때 참고하세요.
- 건강한 숲 10㎢에서 연간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배출해요.

피톤치드 200배 마시는 방법

1. 편평한 바닥에 편하게 앉거나 서서 두 눈을 감으세요.
2. 배가 쏙 들어갈 때까지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가 볼록 나올 때까지 내쉬어요.

스트레스가 싹~ 악 없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씨앗의 대이동 & 번식 방법

동물들은 영역 싸움을 하거나 영역 표시를 함으로써 자신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식물들은 자기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킬까요? 그 비밀은 식물의 씨앗에 숨어 있습니다. 식물의 씨앗은 모양과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이러한 모양은 씨앗을 퍼뜨리는 전략과 관계가 있지요.

1.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날아가는 식물

: 단풍나무 열매, 민들레 등



털이나 날개 같이 바람에 잘 날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2. 껍질이 터질 때 폭발력을 이용하는 식물

: 제비꽃 씨앗, 물봉선화 등



꼬투리가 싸여 있다가 건조해지면 껍질이 터지면서 종자가 튀어 나와요.

3. 동물의 털에 붙어 이동하는 식물

: 도깨비바늘, 도둑놈의 갈고리 등



바늘이나 갈고리가 있거나 끈끈한 물질이 있어요.

4. 맛있는 과육으로 동물을 유인하는 식물

: 산수유 열매, 으름덩굴 등



딸기, 참외, 포도, 수박 등의 과일도 여기에 속해요.

* 식물 종에는 물 위에 떠서 퍼지는 씨로는 연꽃, 수련, 야자나무 등이 있어요. 열매 속에 공기 주머니 같은 것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될 때까지 물에 오래 떠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제자리에 떨어지는 식물로는 도토리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개 둥근 원형으로 생겨서 땅 위에서 잘 굴러가지요.

십리 절반, 오리나무

오리나무는 '십리 절반 오리나무'라는 전래동요의 가사처럼, 옛날에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오리(五里)마다 이정표로 심었던 지표목을 말합니다. 화학 비료가 없었던 옛날에는 오리나무 가지를 가늘게 썰어 비료로도 썼고, 나막신과 하회탈을 만들 때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쓰임새가 많았던 진짜 오리나무는 자꾸 잘라 써버렸으므로,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오리나무는 둥근 잎을 가진 물오리나무나 뾰족한 잎을 가진 사방오리나무입니다.

사방오리나무 Alnus firma



우리나라 사방사업 때 많이 심어진 나무라 하여 사방오리

물오리나무(산오리나무) Alnus hirsuta



헐벗은 산에 흙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심어놓은 나무

떼로 죽어, 때죽나무

때죽나무는 5~6월에 종 모양의 하얀 꽃이 땅을 향해 달립니다. 추위와 오염에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랍니다. 옛날에는 열매에 독성이 있어 인가에 잘 심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꽃이 아름다워 가로수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열매를 찧어 물에 풀면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마취 성분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로 죽는다 하여 때죽나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실제로는 죽지 않고 잠시 기절을 한답니다.



꽃



열매



수피





진짜나무, 참나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통틀어, 참나무라고 합니다. 참나무의 참은 나무 중의 '진짜'라는 뜻입니다. 참나무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도토리와 잎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상수리나무



이 열매로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도토리묵을 만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신갈나무



짚신 안에 잎을 깔아 깔창으로 썼다 해서 신갈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떡갈나무



떡갈나무와 갈참나무 잎은 갈잎이라고 부르며, 떡을 싸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갈참나무



나무가 '얇게 갈라진다' 또는 '껍질을 갈아입는다' 하여 갈참나무가 되었습니다.

굴참나무



줄기 껍질은 코르크 마개 재료가 되며 굴피집을 지을 때 지붕재로 썼습니다.

졸참나무



참나무 중에 잎과 열매가 가장 작아 졸병참나무란 이름이 붙었어요.

생강 냄새, 생강나무

이 나무는 생강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은 노란색의 작은 꽃들이 여러 개 뭉쳐 꽃대 없이 달리는데 생강나무 꽃이 필 때면 알싸하고 향긋한 특유의 향기로 근처에 생강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숲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꽃이 피기 때문에 '가장 부지런한 나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스나 헤어왁스 같은 것이 없던 시절에는 생강나무의 꽃을 따서 말려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발랐답니다.

우리를 찾아보세요









	생강나무	산수유나무
꽃잎	4장	5장
줄기	깨끗함.	벗겨져서 지저분함.
꽃	줄기에 붙어서 핌.	우산 모양처럼 핌.
잎	끝이 크게 3개로 갈라진 공룡 발바닥 모양	윤기가 나고 긴 타원형 모양

야생동물 흔적찾기

동물 친구들의 흔적을 찾아볼까요?

대부분의 동물은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 숲 속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발자국과 배설물로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멸종위기동물 II급 **삵**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나비와 나방

우린 서로 닮았어요

나비와 나방은 모양이 비슷하고 날개에 날개가루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가까운 친척 관계입니다. 이 두 곤충무리를 구별하는 완벽한 기준은 없지만,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점은 달라요



나비

- 주로 낮에 활동한다.
- 몸통이 가늘고 부드럽다.
- 앉을 때 날개를 대부분 접는다.
- 더듬이는 곤봉 모양으로 끝이 뭉툭하다.



나방

- 주로 밤에 활동한다.
- 몸통이 두껍고 털이 많다.
- 앉을 때 날개를 대부분 펴고 앉는다.
- 수컷 : 두껍고 털이 많다.
  암컷 : 가늘고 길며 끝이 뭉툭하지 않다.

다람쥐와 청설모

그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청설모: 난 너무 억울해. 사람들이 날 외래종으로 알고 미워하는데, 나는 대한민국 토종이라구. 그리고 내가 친구인 다람쥐 널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있어.

다람쥐: 말이 좋아 친구지! 네가 날 잡아 먹진 않지만,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네가 와서 다 뺏어 먹잖아. 키가 20cm 정도인 나보다 넌 5cm나 더 커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청설모: 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람쥐처럼 겨울잠도 자지 않고, 집도 높은 나무 위에 지어서 힘과 담력을 키우고 있지.

다람쥐: 청설모 네가 힘을 키울 때 난 예뻐지기 위해 겨울잠을 자. 방도 두 개인 집을 만들어서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침실로 쓰지! 그래서 너보다 깨끗하고 예쁘지!

청설모: 다람쥐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중재해줄 수 있는 하늘다람쥐 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다람쥐: 자연이 많이 파괴돼서 하늘다람쥐가 여길 떠났지!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지?

청설모: 그래, 예전에 비해 환경이 많이 오염 됐지! 맞아! 자연이 예전 같지 않아! 여우와 담비를 피해 놀던 때가 좋았어! 우리 다람쥐 가족(다람쥐, 청설모, 하늘다람쥐) 모두가 함께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신라를 우리 안에!' 1박 2일 여행이 어떠했나요?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차분히 돌아보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적어보세요.



1. 언제, 누구와 함께 왔나요?

2. 무엇을 보았나요?

3.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인가요?

4. 왜 기억에 남았나요?

5.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